

 국토교통부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배포일시	2021. 7. 5.(월) / 총 5매(본문3, 참고2)	
<b>담당 부서</b>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b>담당자</b>	• 과장 나웅진, 사무관 허원석, 주무관 정종선 • ☎ (044)201-3909, 3912, 392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b>담당자</b>	• 과장 김정훈, 사무관 권순관, 주무관 김만근 • ☎ (044)205-4210, 4219, 4221	
	한국도로협회 도로교통연구실	<b>담당자</b>	• 실장 윤재용, 과장 김보성, 대리 류지은 • ☎ (02)3490-1078, 1035, 1044	
<b>보 도 일 시</b>		2021년 7월 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5.(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결과 발표

### 안전하게 조금만 천천히, 안심도로 우수 지자체 선정

#### - 도로교통·재생·안심도로 3개 부문 21개 기초 지자체 입상 -

□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안심도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2개월간 개최한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었다.

\* **안심도로**: 지그재그, 소형 회전교차로, 차로폭 좁힘 등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 유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교통 정온화시설(Traffic Calming)**을 적용한 도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한국도로협회(회장 김진숙)와 공동개최한 이번 공모전에서 3개 부문 21건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7월 7일 도로의 날에 시상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54일간 진행되었으며,

○ 도로·교통 및 도시재생 분야의 2개 계획부문과, 현재 운영 중인 우수사례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서 전문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각 부문별 7개씩 총 21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주요 선정작은 다음과 같다.

① (도로교통 계획부문) 시흥시 보건소에서 제출한 '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원을 수상하였다.

○ '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은 교통사고 및 인구현황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고원식 횡단보도와 수목형 중앙분리대 및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사용하는 한편, 관련 부서 간 학습모임 운영 등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 노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이외에, 대전 서구청, 서울시 등도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위험한 도로에 차도 및 보도포장을 개선하고 차도 폭을 좁히는 등 다양한 교통 정온화 기법을 적용,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② (도시재생 계획부문)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제출한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이 대상작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원을 수상하였다.

○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이 많고 노약자 거주비율이 높아 교통취약층의 이용율이 높은 위험한 도로에 일방통행 설치, 블라드 조명 설치 등의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했고, 특히 추진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여 평가단의 호평을 받았다.

○ 그밖에, 설계에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전주시청의 '전주 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 수원시청의 '인계동 장다리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③ (운영 우수사례부문)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안심도로 중에서는 전주시청의 '전주 첫마중길'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전주 첫마중길’은 차로 중심의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로 변경한 사업으로 도로의 안전성을 대폭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앙 보행광장, 수목식재 400주, 워터미러 분수, 여행자 도서관을 설치하여 도시의 이미지까지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 부각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서울시 보행정책과의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송파구청의 ‘중대로 8길 도로다이어트’ 사업도 차로 수 축소 등 다양한 교통 정온화 시설을 적용하여 보행자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을 평가받아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 이번 수상작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설계 등 기술 관점에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관점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계획부문 수상작에 대해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상기관 의견 수렴 및 수상작의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여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사항을 도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는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선정할 때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수상작 중에서 효과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안심도로가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 “앞으로도 안심도로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모전 개최,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허원석사무관(☎ 044-201-39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계획 부문 도로·교통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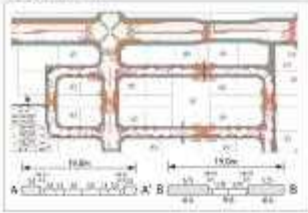
설계명: 경기 변한 건강도시 시흥만들기

대상  
경기도 시흥시청

• 시계면, 교원식 횡단보도 설치 (머먼이보호구역)



• 노상주차면 설치



• 유속 보도폭원 확대



• 교원식 교차로 설치, 회전반경 축소 (머먼이 보호구역)



• 교원식 횡단보도 설치



• 도로 다이어트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계획 부문 도시재생 분야

설계명: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 개선사업

대상  
경기도 하남시청

• 교원식 횡단보도 설치



• 교원식 교차로 설치



• 포장면 표면처리  
블록 포장



• 보행자 휴식공간 설치



• 교원식 교차로 설치

• 속도제한



• 보행자 쉼터



• 중앙보행 공간 및 체크체크 도로



• 교차시 횡단보도

